

2012.01. Vol 214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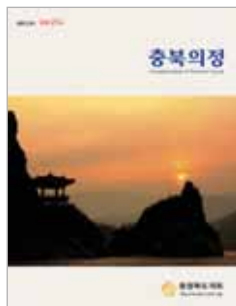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CONTENTS

2012. 01. Vol 214

Cover Story



〈단양도담산봉의 일출〉

붉은 해가 떠오른다.
임진년 새해 아침
산자락 가득한 운무 헤치고
우리 가슴속 깊은 곳
희망의 해가 떠오른다.

- 04 신년사
- 05 새해 의회 운영방향
- 06 2012년 새해 예산안 심의
- 0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09 유기농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 10 되돌아 본 2011년도 의정활동
- 12 외부에서 평가한 2011 의정활동
- 13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활동
- 20 5분 자유발언
- 22 주요 처리의안
- 24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 30 의원논단
- 31 의정일기

새 해 發 願

흑룡의 포효에 맞춰 붉은 해가 솟습니다.
환하게 밝아 오는 우암산 능선을 타고
푹잠 팬 토끼가 놀라 증증걸음을칩니다.

상큼한 새벽 공기 가슴 깊이 들어켜며
흘러가는 물결 따라 무심천을 걸습니다.
아, 벌써 뱃나무에는 봄내음이 풍깁니다.

낮은 데로 길을 내는 물처럼 소박하게
새잎을 틔우려는 나무처럼 간절하게
저 붉은 일출을 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옷소매를 끌어 당겨
가끔씩은 그늘진 곳도 돌아보게 하시고
나보다 우리가 되도록 채찍도 가하소서!

점집마다 웃음소리 도란도란 담장을 넘고
저 높이 걸린 희망은 흥시처럼 곱게 익어
행복이 철철 넘치는 낙원으로 가꾸소서!



김선호

-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시집<공생시대>, <창공에 걸린 춤사위> 등
- 현재 충청북도청 근무



신년사

신년의 밝은 태양과 함께 우리 충북에도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비약과 발전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문을 연 9대 의회는 올 한해에도 도민의 염원과 여망을 받들기 위한 외길을 오롯이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이 충북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등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복지정책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의 체질개선에 나서겠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액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시책에 대해 총 점검하고 지역의 색깔에 어울리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현장을 자율과 창의가 공기처럼 넘쳐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상생의 현장으로 거듭나는 데 중심에 서겠습니다.

넷째, 충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길라잡이로서 대안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아젠다가 도정의 화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 데 보다 포용력 있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월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경 근**





충북도정 서민복지 확대 · 성장동력 확보 뒷받침

교육행정 자율과 다양성 존중 · 양극화 해소 노력

충북도의회는 9대 의회 중반으로 접어드는 새해에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9대 의회가 추구해 온 서민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복지부문에서는 서민들의 체감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뒀 재원확보와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한미 FTA 강행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촌과 농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도가 추진하는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 등 충북

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시책 부문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교육의 양극화 완화와 교육현장의 자율과 다양성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2년차 초·중생 무상급식과 충북도립대학 반값등록금 추진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에 충실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 보다 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2012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

회기별	회 기	회의일수	주요내용	비고
제306회 임 시 회	1.10.(화)~1.19.(목)	10일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안건심의	
제307회 임 시 회	3.2.(금)~3.12.(월)	11일	· 안건심의 · 현안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 삼일절(3.1)
제308회 임 시 회	4.16.(월)~4.25.(수)	10일	· 안건심의 ·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19대 총선(4.11) ※ 장애인의 날(4.20)
제309회 임 시 회	5.8.(화)~5.17.(목)	10일	· 제1회 추경(교육청) · 안건심의	※ 도의회개원60주년(5.29) ※ 석가탄신일(5.28) ※ 결산검사
제310회 임 시 회	6.12.(화)~6.22.(금)	11일	· 제1회 추경(도) · 안건심의	※ 현충일(6. 6)
제 311회 정 령 회	7.2.(월)~7.13.(금)	12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1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안건심의	※ 제헌절(7. 17)
제312회 임 시 회	9.10.(월)~9.21.(금)	12일	· 제2회 추경(도, 교육청) · 안건심의	※ 추석연휴(9.29~10.1)
제313회 임 시 회	10.9.(화)~10.18.(목)	10일	· 2012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안건심의	※ 국군의 날(10.1) ※ 전국체전(10.11~17) ※ 도민체전(10.25~27)
제314회 정 령 회	11.13.(화)~12.21.(금)	39일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3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2012년도 제3회 추경(도, 교육청)	※ 농업인의 날(11.11) ※ 성탄절(12.25)
○ 회기일수: 125일 ○ 연간회기: 9회(정례회-51회, 임시회-74일) ○ 행정사무감사: 1회(제2차 정례회, 11월) ○ 예산안 심의: 4회(5월, 6월, 9월, 12월)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수시 ○ 도정보고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3회(1월, 7월, 11월)				



2012년 새해 예산안 어떻게 심의했나

보편적 복지 ·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중점

충청북도 예산 - 총 3조 1112억원, 53건에 65억원 삭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 농촌복지 예산은 증액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 의결 했다.

충북도의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1,120억원이 증액된 3조 1,112억원. 이중 일반회계는 736억원(3.7%)이 증액된 2조 6,688억원이며 특별회계(7종)는 지난해 보다 384억원(9.5%)이 증액된 4,423억원이다. 또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억원이 증액됐다. 기금운용은 모두 16종으로 지난해보다 521억원(38.4%)이 증액된 1,876억

원 규모다.

이번 예산종합심사에서는 제9대 의회의 중점과제인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안 심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대비 89억 9,000만원이 증가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신규 사업인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사업」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예결특위는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사업」은 가사와 영농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복지지원으로 평가한 반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과중하다며 도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이례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예산을 3억 1,985만 6,000원 증액편성하고 시·군 부담률을 70%에서 60%로 낮춰 수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제1대 예결특위가 이례적으로 3억900만원 증액을 의결한 데 이어, 올해 제2대 예결특위도 집행부 예산 증액을 의결하여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증액할 수 있다는 9대 의회의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 줬다.

또한 예결특위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논란이 되었던 케이블TV 광고 사업비 11억 4,524만원 중 종합편성채널 광고비 8,000만원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경기장 건립비 37억2,400만원 중 13억 340만원, 항공

정비단지(MRO)사업 대토부지 매입비 27억 7,000만원, 편입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사전절차 미 이행 등으로 삭감하는 등 총 53건에 65억 5,69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2012년 충청북도 예산〉 (천원)

회계별	수정예산안	최종확정액	증감(계수조정)
계	3,120,959,767	3,120,959,767	증 319,856 감 6,566,991
일반 회계	2,678,638,565	2,672,559,430	증 319,856 감 6,398,991
특별 회계	442,324,202	442,153,202	-168,000

※ 증감계수조정은 예비비로 다시 편성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액은 변동 없음

2012년 새해 예산안 어떻게 심의했나

과다 계상 · 효율성 낮은 사업예산 삭감

충청북도 교육청 - 총 1조 8016억원, 32건에 26억원 조정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965억원(5.7%)이 늘어난 1조 8,016억원이다.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부문이 지난해 대비 1,089억원(6.7%)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3억원(10.5%) 증가된 반면 교육일반 부문은 총 6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7억원(16.2%)이 감액됐다.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예결특위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18억원 중 3억원, 초등학교부진학생 지도수당 18억 5,350만원 중 5억 5,605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32건에 26억 5,88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과 사업 효

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조정했다.

〈2012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천원)

회계별	수정예산안	최종확정액	증감(계수조정)
계	1,801,594,560	1,800,164,320	-1,430,240
유아 및 초·중·등교육	1,732,599,364	1,731,230,064	-1,369,300
평생·직업교육	3,120,959,767	3,120,959,767	-17,340
교육일반	3,120,959,767	3,120,959,767	-43,600

※ 증감계수조정은 예비비로 다시 편성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액은 변동 없음

송곳 질의 · 정책대안 제시에 집행부 공감

430건 지적 (시정 154, 건의 276), 집행부에 조치 요구

감사기간 4일간 늘려… 집행부 감시기능 강화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도정과 교육시책,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9대 의회 2차 년도를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의원연찬회와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축적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송곳 질의’에 이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벌여 집행부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문제점 △하위권으로 떨어진 도의 정부합동평가 대책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혁신·기업도시 행정지원 △시·군 균형발전사업 △오송바이오밸리 현상공모 및 드라마트장 부설 운영 △방과 후 교육의 문제점 △도교육청의 소통부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갖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다.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54건, 건의 276건 등 총 43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해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 건수는 2010년도 367건에 비해 17%나 증가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펼쳐졌다는 것을 반증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5건(시정요구 1, 건의 4) ▶정책복지위원회 78건(시정요구 26, 건의 52) ▶행정문화위원회 56건(시정요구 46, 건의 10) ▶산업경제위원회 72건(시정요구 26, 건의 46) ▶건설소방위원회 89건(시정요구 16, 건의 73) ▶교육위원회 130건(시정요구 39, 건의 91)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기간도 종전 10일에서 14일로 늘리는 등 집행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11월 16일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에서는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내용 중 자료 누락, 수치 오차, 금액 변동 등 부적절한 자료가 많아 보완한 후 당초 예정에 없었던 감사를 하루 더 연장해 실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인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위원회별	계	시정 개선 (처리)요구	촉구·건의사항
계	430	154	276
의회운영위원회	5	1	4
정책복지위원회	78	26	52
행정문화위원회	56	46	10
산업경제위원회	72	26	46
건설소방위원회	89	16	73
교육위원회	130	39	91

도의회, 유기농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천명

“유기농 특화도 앞당기는 계기 될 것” 환영 성명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세계유기농엑스포의 과산 유치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2015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도의회는 유기농엑스포 유치는 과산군과 함께 실무TF팀을 구성해 지원한 충북도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한 후 「유기농 특화도」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도가 추진하는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유기농엑스포 유치로 충북의 핵심산업인 생명산업이 오송의 바이오산업과 과산중심의 유기농산업으로 다양화 되고 기반도 넓혀나갈 수 있게 됐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 충북 유치 환영 성명서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산하 세계유기농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지난 21일 독일 본에서 2015년 엑스포 개최지로 ‘충북 과산’을 선정된 것을 160만 도민과 가슴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기농엑스포는 유기농업의 기본 원리와 기술을 과학적 연구자료를 토대로 세계인들에게 조명하기 위해 세계유기농학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유기농 특화도’를 지향하는 충북이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생명산업은 오송의 바이오산업과 과산의 유기농 산업으로 다양화 되고, 기반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북도의 유치지원 실무TF팀 구성과 박경국 유치단장 등의 현지노력, 그리고 과산군의 합심 협력의 성과라 평가합니다.

우리 충북이 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입장료

수입과 농특산물 판매, 지역 브랜드 가치상승 등 직·간접소득 1,800억원과 3만 5천여명의 일자리창출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엑스포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미 FTA 확대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최근 급성장하는 유기농식품시장을 선점하여 충북농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5 제1회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지로 충북 과산을 선정하기까지 힘을 실어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주신 충북도와 과산군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도의회도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충청북도의회

되돌아 본 2011년도 의정활동

‘도민복지 확대 · 지역발전 위해 달려온 한 해’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각종 통계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위원회와 의원들의 조례발의 건수가 55건으로 전년도 27건의 2배에 달했다. 도정질문도 16명의 의원이 105건을 질문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429건을 지적해 전년도보다 월등했다. 각 분야별로 충북도의회 2011년도 의정활동을 정리해 본다.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 약속을 뒤엎자 도의회는 ‘충청권 사수’ 운동에 불을 지피고 앞장섰다. 도의회는 민·관·정 연석회의 제안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시·군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 켈기대회를 여는 등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에 앞장섰고 기능자구의 청원권 유치 성과를 얻어냈다.

도정 현안으로 부각된 국립암센터 오송分院 유치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에는 충북도의회 주도로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오송이 최적지임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을 방문해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했다.

보편적 주민복지 확대 노력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다양한 역할을 했다. 소외감으로 가슴이 멎드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데 공감해 도와 교육청의 비용분담 문제를 중재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무상급식 2년차인 새해에도 도와 교육청이 합의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 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와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구체화

9대 의회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역에서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의지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최초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벗어나 충북 옥천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다짐대회도 열었다.

제천과 괴산에서는 현장 상임위원회 회의와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섰다.

또한 충북도에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투자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옥천서 역사상 첫 본회의 열어 지역균형발전 의지 천명 집행부 감시 기능 강화 ·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체화

집행부 감시 · 견제 강화 노력

집행부 행정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한 제도화에도 역점을 뒀다.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변상·징계 요구는 물론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요구한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대하고 감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상시·현장의회의 실현을 위해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현안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부서의 업무숙지 부족을 이유로 초유의 예산심의 중단사태를 초래했다.

일본지진 발생시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등 비회기에도 긴급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등 도정운영에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다.

도민들이 언제라도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9월부터 모든 본회의의 진행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으로 도민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흑룡강성과 의원외교 성과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충북도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오송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와 흑룡강성~청주 공항 간 항공기 취항 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하여 올 봄에는 기업인들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흑룡강성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해 항공기 취항을 비롯한 5대 과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의원외교는 도의회가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과 기능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도의회 교류·협력사에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외부에서 평가한 2011 의정활동

장선배 의원

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우수 도의원'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정책복지위원회)이 충북도청을 출입하는 정치담당 기자단이 뽑은 2011년 우수 도의원

에 선정됐다.

출입기자단은 지난해 12월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투표를 실시해 장선배 의원의 우수 도의원에 선정해 표창패를 전달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기자단 의정평가는 출입기자 42명 가운데 3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종합 평가한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장의원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예산절감시책의 문제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미이행 등 정책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헌경·장병학의원

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충청북도의회 임헌경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과 장병학 의원(교육위원회)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을 잘한 우수도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이진형)은 지난해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해 각각 우수의원을 선정해 도의회 의장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수 도의원에 선전된 임헌경·장병학 의원은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2010년도 정례회때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를 대상으로 모니터 활동을 벌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제정



▲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05회 정례회의 기간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05회 정례회 회기 중 4차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2012년도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11월 29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에 건의사항 4건, 시정사항 1건을 주문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역안배와 의회소식지 편집방향 변경 및 배부 확대방안 검토 △전체의원 연찬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다.

또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비롯해 「충청북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정회의 추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12월 16일 개최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2011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인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협의했다.

제306회 임시회는 2012년도 1월 10일 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장기 등 기증 장려 근거 마련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회기 내내 사전 자료 준비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관리실을 비롯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지방의료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77건을 지적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도립대학의 특성상 취업률이 매우 중요함에도 교원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로 지나치게 낮은 것 △도립대 교원인사관리 규정이나 학칙 등을 모두 교수회에서 심사하는 불합리함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복지업무의 연속성 결여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한 달 이상 복용할 수 있는 과다한 양을 지급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국가재정 부담 등의 우려 △충북학사 입시생 선발 시 시·군별 인구비례를 감안하여 선발에 형평을 기하고 입시생에 대해 매년

재심사를 하여 시·군 안배로 충원할 것 △충주의료원의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12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예산액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 산출기초가 타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는 사업 등 21건 7억 7,842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또한 심기보 의원의 발의로 「충청북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장기 등을 이식 받고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선배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감사참여를 유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11월 17일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정신병동 신축현장을 확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도 단위 최초 도민참여 조례 제정



▲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16일 옥천군에 위치한 도청 남부출장소 건립 부지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 후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2011년도 도정운영의 실태파악을 통해 자치입법 및 예산심사 등에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활성화, 행정절차를 무시한 조례와 예산은 의회에 제출하지 말 것 등 4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실·국별로는 △공보관실 소관 도정홍보지의 개선방안 제시 등 4건 △행정국 소관 지방세 징수철저 등 12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외국인 관광활성화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등 21건 △자치연수원 소관 장애인에 위한 교육활성화 방안 개선 등 2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적개선 등 모두 46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또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일 것과 개방형직위

제 취지를 살릴 것 등 10건을 건의했다.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요구액 6,606억 6,501만원 중 도정영상 디지털화 및 DB구축 등 24건, 36억 5,348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보장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심사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공개,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 이상 연서로 도민정책토론회 청구 등이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에 도정에 도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민참여 제도의 방법과 참여확대를 연구하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도민참여에 대한 권리보장 및 기능을 강화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한·미 FTA 비준 대책마련 당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 처리된 가운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화)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1월 1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68건의 요청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벌여 △한미FTA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보조금 관리감독 대책 마련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업체에 대해 매월 1회씩 정기 점검을 할 것 △유사석유 판매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에게 많은 홍보활동을 펼치고, 정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 건의할 것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 할 것 등 26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와 46건의 촉구 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MRO사업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여성농어업인복지마우치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부담 증액을 주문 했다.

또한 FTA 대응 농업분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선 총액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당부했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심의를 했다.

한편 11월 28일에는 단양에 위치한 마늘연구소와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등을 현지 방문해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업경제위원회가 11월 28일 단양군 매포읍에 위치한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열처리소성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전문성 바탕으로 현지방문 감사



▲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8일 속리산면 갈목리 속리산연계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개통 후의 안전성 확보와 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전담인력 확보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305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소관 부서별로 현지방문감사를 실시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의회를 구현했다.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정책 △재난관리기금 추가확보방안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재난관리기금 운영용도 확대방안 △국립암센터 오송유치 △바이오밸리추진단 인력재배치 △오송바이오밸리 국제공모전 등으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주문 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중 자료가 누락, 수치 등의 금액변동 사항이 상당부분 오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서는 △지방도 공사 이월사업으로 인한 예산 사장의 문제 △충주신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옥천공영버스정류소 신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체계적 관리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전면책임감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자문단 통합 운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우수연구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발의로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제·개정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경관이 우수한 충북 만들기에 앞장섰다.

교육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행정 주문



▲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 진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청원, 진천, 괴산·증평, 음성교육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는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에 걸쳐 8개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지원청, 본청을 대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은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방안 모색 △연중돌봄학교의 효율적 운영 △농·산촌 작은 학교 교육활성화 방안 마련 △학교특별활동 및 선택적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 △충주학생회관부설 시공에 대한 대책마련 △실효성 있는 컨설팅 장차활동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행정 등 총 130건(시정 39건, 건의 91건)을 도출해시정 및 건의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영어과 교사 해외연수 △임대료 수입과 이자수입 감소 △165억을 증액 계상한 교과교실제 운

영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NEIS 서버구축 및 보완사업에 대한 과다 증액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경비내역의 적정성 여부 △40%이상 증액된 초·중등교육과 부서운영비 예산 책정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한 1조 801억 9,456만원 중 14억 3,024만원을 삭감한 1조 8,001억 6,432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삭감내용은 사업타당성 결여, 과다 계상, 사업실효성 및 불명확성을 이유로 지역교육청 도서관 책 소독기 임대료 지원 예산액 2,094만원 전액과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중 선진형 전환 기자재 구입비 10억 5,000만원 전액과 유아·특수교육담당교원교외연수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5회 정례회)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제305회 정례회 기간중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201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17억 5,722만원이 증액된 총 3조 1,209억 5,976만 7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34억 996만 7천원 증액된 2조 6,786억 3,85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3억 4,725만 3천원이 증액된 4,423억 2,120만 2천원이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사업 8천만원 등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과 사전절차미이행사업 등 총 53건 65억 5,699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했다.

그리고 다른 계층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례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 예산을 3억 1,985만 6천원 증액편성하고 시·군 부담률을 70%에서 60%로 낮췄다.

교육청 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5.7%인 965억원을

증액한 1조 8,015억 9,456만원으로 예산심사 결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 32개 사업에 26억 5,883만원을 감액했다.

12월 21일 심사한 제3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인 616억 2,549만 7천원이 증액된 총 3조 2,199억 2,639만 4천원으로 위원들은 제3회 추경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12월 22일 심사한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1조 9,130억 9,60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532억 1,877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단 재교육원 내에 26억 4,316만원을 들여 야구장을 건설하는 것은 낭비성 사업으로 판단해 삭감하였으나 그 외의 사업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경예산 심사에서 향후 명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당초계획 수립시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모습.



5분 자유발언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나서야”



이수완 의원

민선5기가 출범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충북도에서는 외국 5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중 1개 기업은 준공되어 지난 7월부터 가동 중에 있고 2개 기업은 공사 중으로 내년2월 준공 예정이며 2개 기업은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인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속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조직과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에 외자유치팀이 설치되어 있고 이 팀 내에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어 적은 인원으로 일본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단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원천기술이전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결국은 도민들의 삶의 활력소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Made in 충북'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충북도는 더욱 더 적극적인 국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도민들의 행복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살고 싶은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획적인 밀레니엄타운 개발을”



김재종 의원

밀레니엄타운은 1998년에 충청북도 중축장이 이전한 후 도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그간 7회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밀레니엄 타운에 편입된 토지이용 실태를 보면 2008년 7천 평 규모로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을 건립했고, 동·남쪽 7천 평은 충북 생활체육아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을 허가해 종합개발이 아닌 즉흥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도민의 42%인 청주, 청원 주민만을 위한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방안은 첫째,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사유지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원지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지구에서 제척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이나 추가사업을 계획할 때는 미 보상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지구내의 국유지와 도유재산은 개발 시기를 가급적 늦추어 도민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보전 위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시행에 있어 시설투자비나 운영관리에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사업 전체를 민자 유치로 추진하여 그 예산을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각적인 오송역세권 개발 필요”



박문희 의원

충북도는 지난 4월 KTX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화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에 이어 5월 서울에서 국내 대형건설사 및 재무투자자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오송역세권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선 투입 부담, 높은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민간기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송역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이에 따른 재산적 불이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을 축소지정하고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전면 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발 구역에 대한 일괄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성이 타당한 지역에 대한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충북도의 개발사업의 성공과 지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선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야 합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민간사업 시행자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고 주민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구역 규모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과는 당연”



전 응 천 의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들의 출장에 대해 지적한 이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망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보도이후 교육위원들이 알게 모르게 위축되어 있어 적극적이고 올바른 지적도 망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중장기과제」로 선정한 「작은학교 살리기」를 수행하면서 학교를 살리는 것은 학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장이 중심에 서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장 출장일수 지적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보도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날 도교육청 감사실 누구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빨리 답변해야 되니 전응천 의원 재직 시 출장일수를 빨리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다”고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실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조사를 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담당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5년에 제가 재임했던 모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저의 출장일수를 또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개인정보유출 경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왜 엉뚱하게 제 출장일수를 또 조사했을까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정보공개유출경위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서면질문에 내실있게 답변해야”



김 양 희 의원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상·하 관계나 종속 관계가 아니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서로 상호 협조해야 할 사안은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 본질적인 기능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소중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의회 핵심 기능을 철저히 부정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지난 11월 15일 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지사가 답변을 거부하고 의장은 도정질문 시 의원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해방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민이 부여한 의무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피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에 따라 지사께 구체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우 세밀한, 아주 자세한 서면질문서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6시 마감 직전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답변서 내용이 기가 막힐 정도로 무성의하고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에 누락시킨 답변을 포함해 무성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 서면질문을 다시 보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에게 답한다는 신중한 마음으로 내실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FTA 폐기에 도의회가 나서야”



김 도 경 의원

한미 FTA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도민 여러분과 특히 농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농업이 무엇입니까? ‘농업은 국민의 생명 줄’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다른 나라에 내주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란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여의 농업정책은 그야말로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집권초기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수많은 국민적 저항을 촉발하였고 결국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게 다 내주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각종 FTA와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은 무조건 내주는 카드로만 일관하는 천박함은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고 한-호주FTA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하는 등 농·축산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미FTA 날치기를 통해서 그나마 근근이 부지하던 농민들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미국의 손아귀에 넘기는 협정입니다. 미국과 FTA협상을 한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하나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얼마나 많은 분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가능할 수준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미 FTA폐기에 나서야 합니다. 소속과 정당을 떠나 우리 국민에게 독약과 같은 한미 FTA폐기에 충청북도 의회가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처리 의안

제305회 정례회 주요안건

현장중심

광역도의회 최초로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정책형성 · 결정 · 집행 도민참여 권리 보장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제정된 도민참여 기본조례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형성,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치치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 △예산편성에 도민참

여 △선거권을 가진 충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민정책토론회 청구 △정책토론회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청회 등의 도민참여 △도민건의 조사 실시 △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도민참여 확대와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에 도민들의 참여를 크게 넓히는 의미 있는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최병윤 의원〉

- 충북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권리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열린감사 실현과 도와 시·군정의 감사 기능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능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공정성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재 산정 고시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도정비전과 연계된 팀 신설, 여성부서, 복지 분야의 인력보강, 그 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권기수 의원〉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구역 지정 기준의 현실화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의 명확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도로명주소법」이 2012.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임 현 의원〉

-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규철 의원>

-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2012학년도 학교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학교의 명칭 변경, 학생 수 감소에 의한 소규모 학교 폐지와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를 반영하고, 학교설립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현행 조례에 대한 자체 일제정비계획(11.7.14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시·도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문정비가 필요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일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 개선·보완하고자 함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도로명 주소가 확정고시(11.7.29)됨에 따라 현행 지적법규 조례 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여성정책관, 복지분야 기능 강화, 도정 분야별 현안추진을 위한 팀 신설, 명칭 변경과 업무분장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심기보 의원>

- 장기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등을 공평하게 이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범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를 지원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 확보를 위해 공유지와 의 재산을 교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대표발의: 임현경 의원>

- 공공건축물 설치 및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 사업계획 수립 시 창의적 공공디자인 도입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윤 의원>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단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충북혁신도시조항 규약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항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정정합니다

제213호에 게재한 주요차리의안 중 도시사, 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표기를 '제출'로 정정합니다.



▲ 우호교류 10주년 비망록 조인식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11월 1일부터 4일간 김형근 의장을 단장으로 성인민대표회의와 성정부를 방문해 충북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청소년 교류사업, 식량생산, 무역·관광종합개발에 충북기업 참여, 오송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민자유치, 항공기 취항 등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했다.

김형근 의장 전국 시·도의회 정책위원장 선임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충청북도의회 김형근 의장이 지난 12월 7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형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범 20년을 맞은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결집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데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창구를 다변화하여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충혼탑 참배로 새해업무 시작



충청북도의회가 김형근 의장과 청주권 의원들은 2일 아침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을 참배했고, 다른 의원들은 해당 시·군의 충혼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임진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 2012 무상급식 합의

지난해 11월 8일 김형근 의장과 이시중 지사, 이기용 교육감이 관계자들과 함께 2012년 무상급식비 856억원을 부담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김형근 의장, 최진섭 부의장, 박문희 위원장, 임현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추진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청댐 유역 친환경발전 토론회

박문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충북지역개발회와 충북일보가 개최한 '대청댐 유역 친환경발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댐 주변 제한 구역에 대한 제한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 충북 농업정책 토론회

김도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충북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시장개방에 대한 충북 농업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FTA 발효로 발생될 농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마련 등을 강조했다.



▲ 충주의료원 현지 방문

정책복지위원회는 11월 17일 충주의료원 신축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 단양마늘연구소 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9일 단양 마늘연구소를 방문해 신세균 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조현 중봉사당 현지확인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16일 옥천 안남면 조현 중봉사당을 방문해 보수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22일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입주기업체와 오송단지 진입도로 건설현장을 확인했다.



▲ 옥천교육지원청 현지감사

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 옥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영동, 옥천, 보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산촌 작은 학교 교육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시설방문

11월 7일 김영근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청원군 북이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신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해 사용키로 했다.



▲ 사랑의 연탄나누기

11월 9일 김영근 의장이 청주 수암골에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누기사업 출정식에서 징검다리 회원들과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 의정활동 참관하는 학생들

2011년 정례회 기간중 도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본회의 진행과정을 기록하며 방청하고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우수부서 시상 ▶

충청북도의회는 12월 29일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복지국, 행정국, 농업기술원, 바이오밸리추진단,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을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해 시상했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충청매일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등 현안 해결 적극

충북도의회 121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충북도의회가 지난 22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21일간 일정을 진행한 2011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의 주요 제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결산 예산안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결정 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관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정책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민주당·총무당)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도지사가 내신 상임기 중 '충북 혁신도시관리청' 개칭을 목표로 도의회에 제출한 '충북혁신도시청 규약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회기를 마감한 충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도민의 요구에 적극

고, 페이스를, 프라이터 등을 도입해 도입 참여를 높였다. 지난 11월 중국 후베이 시 웨이하이 오송하이오양공기 취항 관련 의안은 벌써 청주-하얼빈 간

충청타임즈

충북 무상급식 “양·질 업그레이드”

내년도 급식비가 올해보다 13.3% 증가한 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내 12개 지자체의 급식비 부담액은 8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청타임즈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8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갖고, 내년도 무상급식비로 829억원에 모두 856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762억원보다 94억원(12.3%)이 증액된 것이다. 지자체 부담액 829억원은 도와 지자체 분담액 '8대 2' 분담에 따라 도가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도 부담액은 35억원, 시·군 부담액은 53억원, 급식비 부담액은 6억원씩 늘어난다.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는 올해 400개 학교 18만 3665명에서 2012학년도 15만 5000명으로 줄었다. 급식지원 대상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초·특수학교는 300명에서

충북타임즈

충북 무상급식 “양·질 업그레이드”

내년도 급식비가 올해보다 13.3% 증가한 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충북도내 12개 지자체의 급식비 부담액은 8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청타임즈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8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갖고, 내년도 무상급식비로 829억원에 모두 856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762억원보다 94억원(12.3%)이 증액된 것이다. 지자체 부담액 829억원은 도와 지자체 분담액 '8대 2' 분담에 따라 도가 171억원, 12개 시·군이 257억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도 부담액은 35억원, 시·군 부담액은 53억원, 급식비 부담액은 6억원씩 늘어난다. 급식지원 대상 학생수는 올해 400개 학교 18만 3665명에서 2012학년도 15만 5000명으로 줄었다. 급식지원 대상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초·특수학교는 300명에서

중부매일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

의원 다수 동결 의견... “조례 개정 안하겠다”

나설 의결 의견 채택 의결이 주 1석의 12건은 조례 예연 그리 할)자)난한 의 결)하)다. 충북 오후 7시 10분

+월경수당) 총액이 5천88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의정비 4천968만원보다 2.4%(120만원)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충북도의회 박문희 운영위원장 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의정비 결정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의정비 연상 규제가 적합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을 적용해 의정비를 맞춰준다면 어떤과 같은 가족한 여론의 못대를 맞는 상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현행 의정비가 낫다”는 의견은 4.6%, “확정비가 낫다”는 45.2%, “나름 낫다” 50.2%를 보였다. / 최홍준 chong@jnews.com



이날 충청타임즈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8월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2년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갖고, 내년도 무상급식비로 829억원에 모두 856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충청투데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적극 나서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김희수 의원(단양)은 “충북형 예비 사회책임기업이 2014년까지 자립 기반을 갖춘 100개 기업을 육성한 다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 수를 더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소방위의 균형건설과 감사

충북도의 행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 감사에서 손문규 의원(영동)은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세 감사가 재식구 감파기라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

공직비리가 재발할 수 있도록 줄 것”을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청주)은 “소방직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소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서는 일원화돼야 한다”며 “조직 리부서와 협의해 감사부서 일원

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문화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 청남대와 육전 조현 중동 사 남부출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감

과 실태 파악에 나섰다.

윤경철 기자 yoonk@ccnnews.com

충청매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보조금 집행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6일 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 판매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정현 의원(괴산)은 “유사석유 판매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진천)은 “보조금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집행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단양)은 “충북형 예

다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지정업체 수를 더 늘리고 질타했다.

박문희 의원(청원)은 “지역 개발계획 연구용

2017.12.16(목) 04면 정치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 질타 이어져

충북도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현행 의정비 결정 제도는 ‘소모적’

김 영 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011년은 그 어느해 보다 의정비 인상에 관한 논란이 뜨거웠던 한해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충북도의회 의정비’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눌러보니 실로 많은 언론기사가 펼쳐졌다. 거의 매일 의정비와 관련된 기사와 사설이 지역의 언론을 장식했다.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와 사설도 간간히 눈에 띄었으나 대부분이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였다. 충북 12개 시·군 의회가 동결했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세금으로 지출되는 의정비를 올리는 것에 도민들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의회는 의원 전체 설문조사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기준액을 올린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충북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도지사는 각계의 인사를 추천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의정비를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정비가 2008년 인상된 이후 동결된 점,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공급 인상률을 반영한 행안부의 월정수당 기준액 상승에 대한 적절한 검토,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유급제의 근본적 취지에 동감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9대 의회 들어 도정질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이 강화된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의회는 언론과 여론의 반대정서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액을 의결해야하는 절차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한 끝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한달 반 동안의 의정비 논란이 마무리된 듯하다.

그러나, 실상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의정비 인상 논란은 매년 전국적으로 반복되었다. 또한 노정된 의정비 결정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올해 하반기에 또 다시 논란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를 제약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정비 결정만큼은 지방의원 스스로가 의정비를 결정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비해 지방의원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이기 보다는 소모적 논란을 야기시키는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많은 성과와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눈에 비쳐진 의회에 모습은 아직 부정적인 면이 많다. 깊이 성찰하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정비 인상 논란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임진년 새해에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더욱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 역시 신뢰를 가지고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살피주는 한 해이길 소망한다.



중국 흑룡강성과의 의원외교



최진섭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지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가슴 벅차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 이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은 중국 흑룡강성과의 의원외교, 흑룡강성 인민대표회의와의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고, 이때 오송 차이나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와 흑룡강성~청주공항간 항공기 취항 등 5대 협력과제를 제시해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 도의회가 우리 도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풀어내는 민간외교 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낸 것이다.

김형근 의장을 단장으로 필자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은 흑룡강성의 초청으로 11월 1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을 보냈다.

초반 일정에는 지난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초청 연설을 했던 흑룡강성 유 복(劉福) 부비서장 면담이 있었고 우리나라 CJ제일제당과 아시아 최대 곡물기업인 흑룡강성 북대항 그룹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북대항CJ식품회사의 하얼빈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에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흑룡강성 정부 리우봉 부성장과 회담에서 흑룡강성 정부가 추진 중인 8대 경제구, 10대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도의 참여요청을 청취하고 북대항CJ식품회사의 에로사항인 물류비 지원을 건의했다.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곡 위(曲偉) 원장을 만나서 충북발전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기도 했다.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길병헌(吉炳軒) 주임을 방문해서는 우리 측이 준비한 5대 우호교류 과제를 제시하고,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10주년 기념 비망록 조인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흑룡강성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인 태양도습지와 송화강 북쪽 개발현장을 시찰하고 흑룡강성 인민대표회의를 방문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대표부 설치 건과 흑룡강성에서의 ‘한국유학생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저녁에는 충북출신 중국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흑룡강성 인민대표회의와 정부를 방문하고 개발현장을 둘러보면서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 유학생들과의 만남에서는 희망찬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뿌듯한 것은 우리 도의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올 봄 흑룡강성 인대 부주임을 단장으로 관광국장 과 중국기업인들로 구성된 흑룡강성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중국 대표단이 와서 오송 차이나문화테마파크 관광시설 투자와 하얼빈 공항~청주공항 항공기 취항을 비롯한 5대 과제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벌여 결실을 맺게 되길 소망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별,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1~5155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1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